소년단
1956.1

나는 조선 소년단원으로서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
령 김 일성 원수에게 무한
히 충성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며 항상
준비할 것을 동무들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

눈 나리는 아침에

김 학 연

행복한 소년에 대하여

밝은 광장에, 높은 지붕 우에
펑 펑 나린다. 새해의 함박눈이…
넓은 거리에, 달리는 트럭 우에
소리 없이 나린다. 하이얀 꽃'잎처럼…

공장으로 가시는 아저씨인가?
나의 곁을 기운차게 지나가시며,
《오 꼬마동무! 눈사람이 됐군!》
어깨 우의 눈을 털어 주신다.

나도 기운차게 뒤따라 걸으며
《저는 소년단원입니다. 재해의 인사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덥석 나의 손목 쥐시며,
《소년단원 동무, 새해를 축하합니다!》
아저씨는 웃으시며 공장으로 가신다.

우리네 머리우에, 우리네 어깨우에
사분 사분 나린다. 새해의 눈송이,
우리네 가슴우에, 우리네 두 뺨에
소복 소복 나린다. 아름다운 눈송이,

어디로 가시는 인민군대 아저씬지
나의 곁을 힘있게 걸어가시며
《넥타이의 눈을 내 털어주지…》
가슴에 안기인 눈을 털어 주신다.

《인민군대 아저씨! 고맙습니다》.
번쩍 손을 들어 인사했더니—
웃으시며 나의 손목 이끌어주신다.
아, 새해의 아침길은 즐거운 길이다.

불행한 소년에 대하여

무너진 담정우에, 어두운 거리에
눈이 나린다. 쉬임없이 나린다.
찢어진 홑옷으로 몸을 두른 남조선의 소년—
소년은 넋없이 눈 속을 헤매인다.

몇달채 수업료를 물지못한 소년.
소년은 학교에서 쫓기여 났고.
아들의 수업료를 위하여 집을 나간 어머니
며칠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는다.

학교— 수업료— 그러나 소년의 생각은…
학교도 잊었고, 자기도 잊었고,
어느 눈'발 속에 떨며 있을 어머니
다만 어머니 생각 뿐—.

아, 그러나 소년은 모르리…
미국놈의 찦차에 어머니 깔렸음을.
놈들의 더러운 손이
소년의 어머니를 한강에 버렸음을.

눈이 나린다. 쉼없이 나린다.
온 장안에, 썩은 지붕들에…
그러나 쓰린 가슴 달래이며 소년은
어머니를 찾아 헤매이고 있다.

이러한 소년이 하나 뿐이 아니다.
남조선 곳곳에서 소년들은 떨고 있다.
학교도, 집도 새해도 없는…
눈나리는 아침길을 즐길 수 도 없는…

그들은 넷이였다

주 태 순

영웅의 봉우리 1052고지 왼쪽에 있는 한 무명 고지 싸움 때에 있은 일이다.

싸움은 잠시 멎었다. 콩 볶듯 요란스럽던 총소리도 멎고 이따금 산비탈에는 적의 눈 먼 포탄이 떨어질 뿐이였다.

재벽부터 벌써 다섯번째 적의 반 돌격을 물리친 우리의 자동 총수들은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열 아홉이서 고지를 지켰는데 이재는 다만 로동당원인 유 상현 전사와 민청원들인 렴 태경, 리 종수, 리 인철 전사만이 남아 있었다.

다섯차례의 싸움에서 적은 400명 이상이나 자기 병사들을 잃었으나 적 장교놈들은 여전히 고지를 빼앗아 보려 날치였다.

아직 5백명은 넘는 적을 어떻게 넷이서 당해낼것인가! 거기다 로동당원인 유 상현 전사는 팔과 다리에 상처를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였다.

민청원 렴 태경 전사는 유 상현 전사를 부축하면서 말했다.

《상현 동무, 내 잔등에 업히우오. 저기 바위 밑까지 가서 응원 부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요. 이 고지는 민청원 셋이서 지켜낼테요. 자 얼른. 적들이 기여 오르기 시작했소》.

당원 유 상현 전사는 적들이 기여 오른다는 말을 듣자 눈을 번쩍 뜨며 아까 날창으로 원쑤의 가슴팍을 마구 찔러 눕히던 썩바위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이였다.

《동무들! 나는 여기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소. 나는 당의 아들답게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하여 이 고지를 지켜 내고야 말겠소. 부상을 입었다고 고지를 내 놓겠소? 동무들과 같이 싸우겠소. 무엇이 두려울 것 있소》.

유 상현 전사는 입술을 깨물면서 전우들을 쳐다 보았다.

그는 민청원 렴 태경 전사가 자기를 업으려고 들여민 등을 밀며

《나에겐 아직도 당증을 품은 심장이 있고 성한 한 다리와 한 팔이 있지 않소! 동무들! 우리 넷이서 힘을 합해 싸운다면 반드시 이 고지는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끝끝내 거절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적들은 또다시 고지 중턱을 지나 곧 바로 기여 오르기 시작했다.

로동당원 유 상현 전사는 이미 마음 속으로 결심을 다진 것이다.

(해는 이미 서쪽에 기울어졌으니 얼마 있으면 응원 부대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고지를 지켜야 한다. 만약 귀중한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당과 수령을 위하여 나는 서슴 없이 목숨 바쳐 싸우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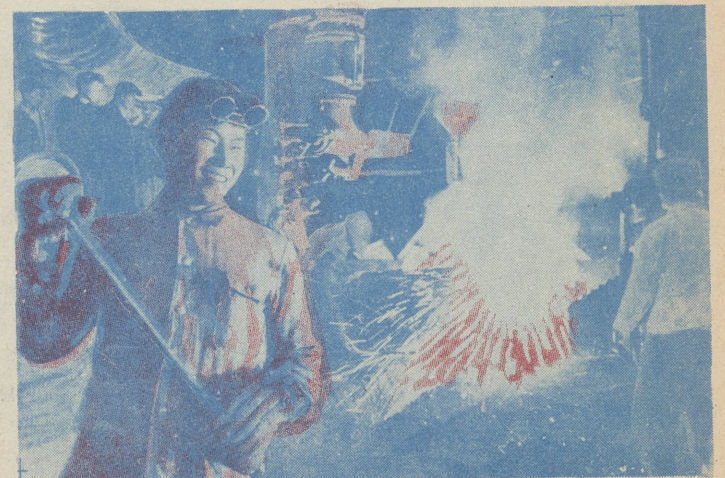
로동당원의 이 불타는 투지와 굽히우지 않는 의지는 민청원 전사들에게 더욱 힘과 용기를 북돋게 해주었다.

《인제 탄알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주어 모은 수류탄이 저렇게 많지 않는가. 무엇을 두려워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창립 열돐을 맞이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청원들은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부름에 따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 ×

(ㄱ) 이들은 청진 제강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 빛나게 하고 있는 민청 브리가다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민청로〉에서 립철(굳은 강철의 일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라. 로동당원과 함께 우리 민청원들은 전우들의 손'길이 닿을 때까지 고지를 지켜내자!》.

민청원 렴 태경 전사는 이렇게 웨치였다.

인제 적들은 눈 앞에까지 다가 왔다.

유 상현 전사는 수류탄을 묶음으로 가슴에 안은채 눈에서는 불꽃이 튕겨 났다. 렴 태경 전사와 다른 민청원들은 자동총을 휘둘렀다. 그러나 얼마 후 총탄도 떨어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뒤로 물러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백배의 적과 맞붙어 총탁과 날창으로 싸울 것인가.

이때 로동당원 유 상현 전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엽때 움직일 수 조차 없던 그가 이렇게 일어선 것이다.

그는 눈 앞에 다가온 적들에게 수류탄을 던지였다. 적들은 아우성치며 쓰러졌으나 계속 개무리처럼 몰려왔다. 그러자 유 상현 전사는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동무들아! 내가 선참으로 나가마. 나는 로동당원, 당증을 품은 심장이 살아 있는한 적과 싸우련다. 동무들! 적을 한놈도 남기지 말자!》.

그는 이미 자기의 최후를 결심한 것이다. 비록 귀중한 몸이지만 자기 한몸으로 수백의 적을 물리치고 조국의 고지와 전우들의 승리를 보장한다면 그것은 더 없는 영예가 아닌가!

(ㄴ) 민청원이며 로력 영웅인 김 봉례 누나가 일하고 있는 평양 방직 공장내 민청 청년 직장의 민청원들, 이들은 로동당 제3차 전당 대회를 빛나게 맞이하기 위하여 새해 첫날부터 자기들의 책임량을 넘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류탄 묶음을 안은채 눈앞에 나타난 적들의 무리 속으로 뛰여 들어갔다. 그 순간 한꺼번에 여러개의 수류탄이 터졌고 수십명의 적들이 쓰러졌다.

유 상현 전사는 참말로 당과 수령의 아들답게 싸웠고 자기의 최후를 빛내인 것이다. 이것을 바라본 민청원들의 가슴에는 더욱 불'길이 솟았다. 민청원 렴 태경 전사가 부르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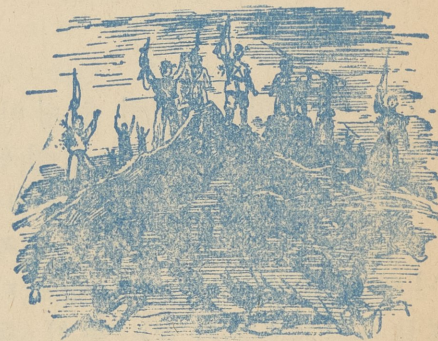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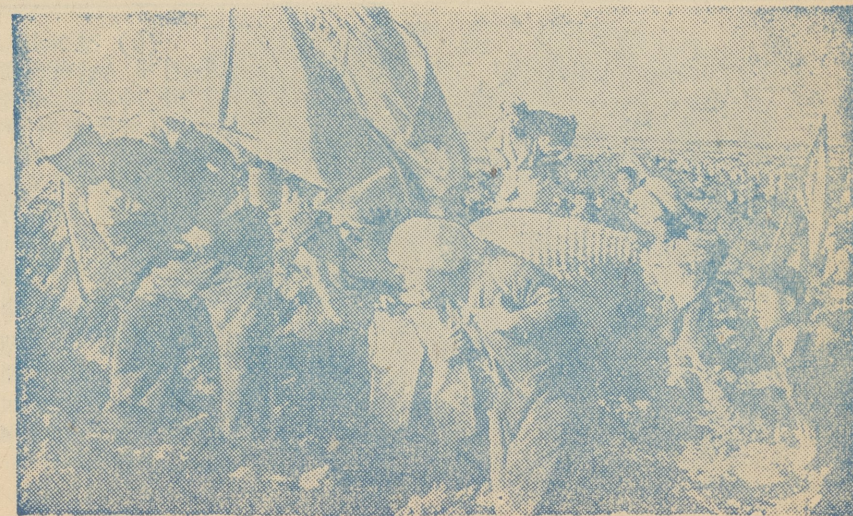
《동무들! 우리는 로동당원으로 되려는 민청원, 로동당원을 뒤따라 로동당원처럼 용감하게 싸워 이기자!》.

그러자 그는 총탁판으로 원쑤놈들의 골통을 까며 고지를 넘어 나아갔다. 그의 뒤를 따라 두 전사들이 판가리 싸움에로 나아갔다.

수백명의 적들은 로동당원의 뒤를 따라 나선 우리 세 민청원 전사들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다. 고지 우에서는 잠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해는 깡그리 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고지 우로 우리 인민군 응원 부대가 닿았다. 얼마 남지 않은 적들은 자기들의 시체를 넘어 도망쳤다.

어둠이 깃든 고지 우에서는 우리 용사들의 승리의 함성이 울렸다.

전우들은 피투성이가 된 세 민청원 전사들을 끌어 안았다. 이때 렴 태경 전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 상현 전사는 훌륭한 당의 아들이오, 우리는 로동당원을 뒤 따라 싸웠소. 로동당원이 우리를 용감한 싸움에로 불렀고 이 고지를 지켜내게 하였소》.

(ㄷ) 고향 마을을 하루 속히 꽃피워 나가기 위하여 관개 공사에 나선 평남도 평원군 대정 농업 협동 조합내 민청원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한 창 수

가을 하늘이 유난히 창창한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민청원이며 로력 영웅인 김 정숙 누나가 일하고 있는 함흥 제사 공장에 소년단원들이 찾아 왔습니다.

《잘가락》《잘가락》 북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공장 안에서 소년단원들은 신문에서 보아 온 누나의 얼굴을 인츰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소년단원들을 보고 방긋 웃어 보이더니 잽싼 솜씨로 그냥 기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자 소년단원들은 영웅 누나를 모시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 ×

영웅 누나가 공장에 들어 온 것은 1948년 가을이였습니다. 그때 누나는 새로 공장에 들어 온 민청원들 50여명 중에서 제일 몸집이 작은 편이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누나를 《꼬마》라고 불렀습니다.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는 일을 처음으로 해 보는 누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부닥치군 했습니다. 키가 작은 누나는 궤짝 우에 올라서서 기대를 다루어야 하였습니다. 애써서 실을 이어 놓으면 얼마 안가서 실이 끊어지군 하였지요. 이럴 때마다 누나는 청년들은《기술을 배우라》,《자기 일하는 기계의 숙련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말씀을 명심하군 하였습니다.

로동당원인 지도원 박 준녀 언니는 정숙 누나에게 꾸준히 기술을 배워 주었고 직접 일에서 모범을 보이군 하였습니다.

정숙 누나는《나도 로동당원처럼 일하며 로동당원의 모범을 본 받겠다》라고 언제나 굳은 결심을 다지였습니다.

이리하여 공장에 들어 온 일 주일만에 혼자서 기대를 다룰 수 있게 된 언니는 이듬해에는 벌써 떳떳한 조사공으로 되였답니다.

원쑤놈들의 비행기가 하루에도 몇차례씩 폭탄을 퍼붓는 어려운 전쟁 기간에도 누나는 조금도 굴함이 없이 자기의 기대를 지켜 일해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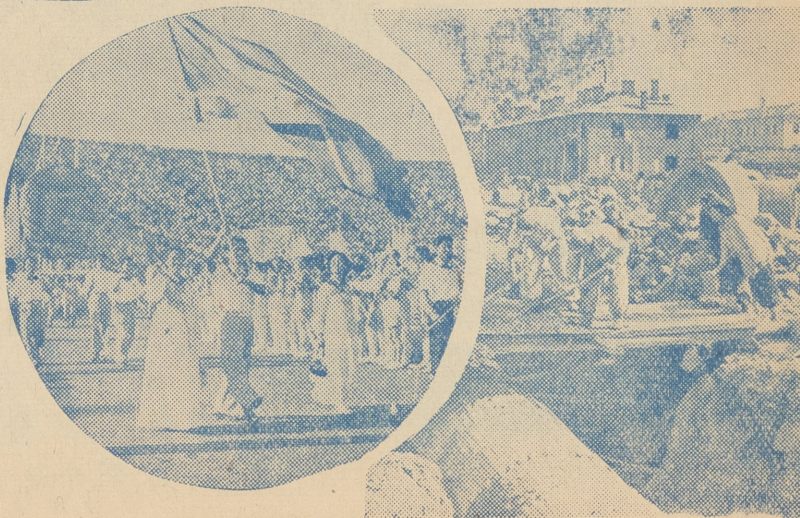
1952년 여름에 있은 일입니다. 그때 공장에서는 자동차의 고장으로 고치를 날라 오지 못하여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였습니다.

이때 언니는 지배인을 찾아가서《자동차가 없으면 우리들이

(2)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민청원들은 로동당원들을 뒤 따라 로동당원들 처럼 용감하게 원쑤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수많은 〈나의 고지〉들〈민청호〉중기들 〈민청호〉포들 〈민청호〉자동차들의 이름 속에는 민청원들이 용감하게 싸워이긴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원쑤의 화구를 자기 가슴으로 막아 이겨낸 김 성진 영웅과 그리고 김 창걸, 리 수복, 김원진, 김 용택등 마뜨로쏘브들은 모두 민청원들이며 480여명의 공화국 영웅들의 이름 속에는 수많은 민청원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3) 조선 청년들은 온 세계 청년들과 굳게 친선을 맺고 세계의 평화와 청년들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여름 와르샤와에서 열린 제5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개막식에 입장하는 조선청년들입니다.

(4) 민주 수도 평양시를 보다 아름답게 보다 웅장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평양시내 민청원 학생들

날라 오겠어요》하고 말하였습니다. 지배인은《폭격이 심해서 동무들을 보낼 수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오》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전선에서 원쑤놈들과 싸우고 있는 오빠들을 생각하여 잠시도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마음 먹은 누나는《나는 민청원입니다. 나에게 맡겨 주세요. 우리 민청원들은 반드시 이 일을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라고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누나는 몇몇 동무들과 함께 원쑤들의 비행기가 잠시도 머리 우에서 떠나지 않는 수십리 길을 걸어 고치를 날라 오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날라 왔으나 실을 뽑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물이 몹시 부족하였습니다. 원쑤놈들의 폭격에 물땅크가 또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였습니다.

누나는 또 물을 길어 오는 일의 앞장에 나섰습니다.

《동무들! 우리의 손으로 물을 길어다 기대를 돌립시다. 어떻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겠어요. 한분 한초라도 기대를 더 돌려야 하지 않아요》.

그가 앞장에 나서 이렇게 말하자 모든 조사공들은 그의 뒤를 따라 물 긷기에 나섰지요.

이리하여 가장 곤난하던 때에도 공장은 하루도 쉬임 없이 일을 계속하였고 누나는 이 해 자기 책임량을 149%로 넘쳐 내였습니다.

누나가 한 일은 이것 뿐이 아니였습니다. 1954년 정월에 로동당원인 당 운실 로력 영웅을 평양에서 만나고 돌아 온 누나는 그의《좌조식 방법》(앉아서 실을 뽑는 기대에서 일하는 방법)을 본받기에 애썼습니다.

누나는 쉬는 짬에도, 잠'자리에 들어 누워서도 언제나 당 운실 로력 영웅이 들려 주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꾸준히 새 작업 방법을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누나는 적은 고치로 많은 실을 뽑으며 기대가 돌아가는 회수를 훨씬 높일 수 있는

《립조식 방법》(서서 실을 뽑게 만든 기대에서 일하는 방법)을 연구해 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우선 자재가 돌아 가는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을 잇는 방법을 고쳤습니다. 전에까지는 10초나 걸려 실을 이였다면 언니는 3초 동안에 잇게 되여 자재가 돌아가는 속도를 배나 높였습니다.

언니가 생각해 낸 이 방법들은 곧 온 공장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1954년 한 해 동안에 이 공장에서는 24,924kg의 고치를 절약하여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민청원 김 정숙 누나는 1954년 12월에 영예로운 로력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벌써 자기 앞에 맡겨진 3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책임량을 넘쳐 끝냈습니다.

× ×

김 정숙 누나는 자기의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소년단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로동당원들은 언제나 나의 모범이였습니다. 나는 로동당원들을 뒤 따라 어렵고 힘든 일을 해 내였고 빛나는 영광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나도 인제는 로동당원이 되였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 영예를 빛내며 보다 슬기로운 승리의 길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지도원

함북도 김책시 제3 인민 학교대 제 3 분단
리 운 범

우리들은 소년단 지도원인 김응호 선생님을 언제나 따르며 존경합니다.

지도원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해 주며 친절하게 우리들의 소년단 사업을 도와 주며 우리들의 모범으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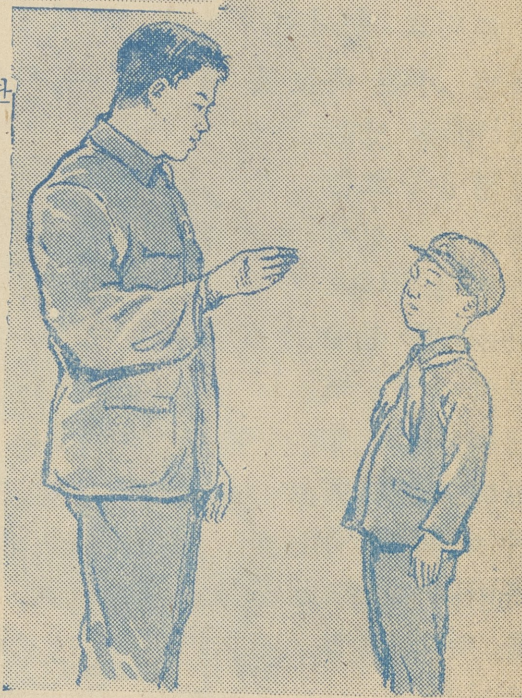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에게 의논해 볼가?》. 누구나 자기가 뜻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 일에서나 끝까지 돌보아 주며 친절히 가르쳐 주니까요.

지금 우리 학교 대에서 제일 인기를 끄는 《꼬마 통신함》과 《번개판》을 우리 분단 동무들이 처음에 제의하자 지도원 선생님은 기뻐하며 찬성해 주었답니다.

아침 마다 《번개판》을 바라 보는 동무들의 얼굴에는 새소식에 대한 기쁨이 어린답니다.

이 《번개판》은 우리들을 말없이 가르쳐 주지요.

쉬는 시간이면 우리들은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을 둘러 쌉니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누구나 이렇게 제의하면 《응. 해주지》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우리의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은 유익하고 재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답니다.

우리들이 도서실에 가면 지도원 선생님은 늘 우리들이 읽는 책을 먼저 읽고 계시지요. 이제 생각하면 지도원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기 위해서였지요.

또한 우리 학교 대의 연예 써클 사업이 잘되는 것도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의 훌륭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맞이 때에 우리들은 연극 《의자》와 가무극 《개미네 동네》를 훌륭히 해내였지요. 처음에 우리 연극 써클에서는 연극은 힘든 것인 줄로만 알고 시작할 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지도원 선생님은 설맞이 준비에 대하여 의논하시며 우리들에게 《연극을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어떻게 연극을 해낼가》 하고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지도원 선생님은 《꾸준히 련습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의자》라는 희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연극 련습은 시작되였습니다. 지도원 선생님은 매일 바쁘신 틈을 타서 우리들의 연기를 일일이 지도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학교대 연극 써클은 첫 연극을 훌륭히 해 내였지요.

그리고 우리 학교대 소년단원들이 모두 잘 추는 군중 무용 《쏘련 뽈까춤》도 우리들의 학습이 끝난 여가에 지도원 선생님이 배워준 것입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대에는 소년단원의 의무를 잘 지키지 않는 동무들이 적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 분단 지도원 선생님들의 친절한 도움으로 모두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도 그런 소년단원의 하나이지요.

나는 1학기까지만 해도 심한 장난'군이였답니다.

공부 시간에는 45분을 헛되이 보냈고 시험 때에는 동무들의 귀틈질만 바랐지요.

한번은 월옥 동무를 때려서 《번개판》에 나붙게 되였습니다.

이때 우리 분단에서는 《이런 일은 계속될 수 없다》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동무들은 성적이 뒤떨어지고 나쁜 장난만 하는 나를 충고해 주었지요.

그러나 나는 충고해 주는 동무들을 나쁘게만 생각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은 《운범인 훌륭한 소년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도와 주지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후부터 방과 후면 지도원 선생님은 우리 분단에 찾아 와서 노래와 군중 무용 그리고 《정찰병 놀음》도 배워 주었습니다.

특히 나는 《정찰병 놀음》에 흥미를 가졌지요.

이리하여 나는 점점 분단 동무들과 친해졌고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을 따르게 되였습니다.

어느 날이였지요. 내가 우리집 마당에서 뽈을 차며 놀고 있을 때 지도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나의 학습장을 들쳐 보고 틀린 글자도 고쳐 주며 어머니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운범인 뭘 즐깁니까?》

하고 지도원 선생님은 웃으시며 나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그만 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나는 머뭇머뭇하다가 《공장 견학과 행군을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지요.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은 《참 좋은 생각이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우리 분단에서는 내화물 공장을 견학할데 대하여 지도원 선생님에게 제의했지요.

지도원 선생님은 이 제의에 찬성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내화물 공장 견학을 떠났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도 일하고 계시지요. 나는 분초를 다투어 일하시는 나의 아버지와 로동자 아저씨들을 보았습니다.

이때 《운범인 훌륭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군…》하고 지도원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저씨들 앞에서 나의 지난 날을 뉘우치게 되였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여야겠다》고…

이처럼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의 친절한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직까지도 나는 성적이 뒤떨어지고 장난이 심한 소년으로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나뿐이 아니지요.

우리 분단에서만 해도 어른들을 존경할줄 모르고 우쭐대던 리원일 동무와 길'가의 담벽에 락서를 잘하고 교통 도덕을 잘 지키지 않던 김 강남 동무들도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 분단 지도원 선생님들의 친절한 가르침을 받아 지금은 모두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답니다

새해의 나의 결의

개성 지구 개풍군 신서 인민 학교

제5학년 **장 경 곤**

희망과 행복에 넘치는 새해 아침은 밝았습니다

해마다 새해 첫 아침을 맞을 때마다 나는 조선 로동당과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따뜻한 품에서 배우며 자라는 행복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지난날 리승만 괴뢰 정부의 통치 밑에서는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굶주림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였으니까요.

나는 이 영광스러운 새해 첫 아침 나의 일기책 첫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쁨과 자랑을 싣고 밝아 오는 새해 나는 이 한해를 보람 있게 보내겠다.

이제 여름이 오면 나는 인민학교를 졸업한다

4학년에서는 우등을 하였지만 이 해에는 꼭 최우등을 하고 졸업할테다. 그리고 몸을 튼튼히 다지겠다. 어서 훌륭하게 배우고 자라 나라의 새 일'군으로 되고 싶다》.

지난 해 까지만하여도 나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 많았지요. 그것은 하루 하루를 규률 있게 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공부도 《래일 하면 되지》하고 미루는 때가 많았지요. 새해부터 이러한 나쁜 버릇을 없애 버릴 결심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까지만 하여도 나는 소년단 사업에 열성스럽게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소년단 생활이 나의 어린 시절을 얼마나 훌륭하게 해 주는가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였지요.

새해부터 나는 소년단 사업에도 열성스럽게 참가하려고 합니다.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반드시 아침 체조를 하는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많은 책들을 읽고 책 속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의 모범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도 모두 영광스러운 새해 첫 아침에 훌륭한 결의들을 다졌을테지요. 그러면 모두다 이 결의를 빛내도록 힘써 나갑시다.

남반부에 계시는 그리운 할머니에게

☆ ★

1956년 새해를 맞으면서 평양 제 5중학교 인민반 제 5학년 1반 리 영세 동무는 공화국의 남쪽 땅인 전라 남도 순천군 근공리 83번지에 계시는 자기 할머니 (정 대복)에게 쓴 편지를 편집부에 보내 왔습니다.

편집부는 리 영세 동무의 편지를 아래에 실립니다.

★ ☆

쑤놈들이 짓밟고 있는 조국의 남쪽 땅에 계시는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영세가 보내는 새해의 인사를 받아 주세요.

영세는 어머니와 함께 공화국의 따뜻한 품 안에 들어 온 후 5년 동안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동생 동세와 고모네집 선희, 병희도 다같이 김 일성 원수님이 계시는 민주 수도 평양에서 지금 훌륭히 공부하며 마음껏 뛰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조선에서는 생각 조차 할 수 없는 훌륭한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여름에는 뜰안의 꽃밭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지요.

우리집 살림은 날마다 행복과 기쁨으로 꽃피여 갑니다.

아버지가 타오신 년말 상금으로 나는 새옷을 해입고 새해를 맞이했지요.

할머니, 나는 이 행복과 기쁨을 느낄 때마다 원쑤놈들이 둥이를 틀고 앉은 남조선에서 오늘도 헐벗고 굶주릴 할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침도 눈보라 치는 추운 길'가에서 헤매고 있지 않는지요.

할머니, 기억도 새로워집니다.

1948년 10월, 《려수 인민 항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였지요.

짐승 같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놈들은 우리 마을을 불사르고 마을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했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치가 떨립니다.

그후 우리는 끝내 고향 집을 떠나야 했고 한집안 식구도 각기 흩어져 살아야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광주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놈들과 용감히 싸우셨지요.

할머니, 고향집 울타리의 감나무는 지금도 여전히 서 있는지요. 해마다 가을이면 맛있는 누른 감을 따먹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심은 양딸기 나무도 인제는 많이 뻗어 퍼졌겠지요.

고향집의 옛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히 떠오릅니다.

할머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까지 한집 안에서 살지 못하며 그리운 식구들의 소식조차 들을 수 없게 되였나요.

이것은 바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놈들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를 미국놈에게 팔아먹고 우리 인민들을 또다시 미국놈의 종으로 만들려는 리 승만 역도놈들의 짐승 같은 만행을 생각할 때마다 불타는 심장에서는 놈들에 대한 증오가 용솟음칩니다.

할머니, 이곳 민주의 수도 평양은 날마다 새롭고 웅장하게 건설되여 갑니다. 화려한 쓰딸린 거리에는 4—5층 건물들이 줄지어 일어섰고 우리의 학교와 공장들도 훌륭히 복구 건설되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형님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과 우리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복구 건설에 한사람 같이 일떠섰습니다.

재작년 10월, 인민 군대에서 제대되여 돌아 오신 아버지는 지금 김책 공업 대학 운수 공학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영웅적 투쟁을 본받아 학습에 더욱 더 힘쓰고 있지요.

할머니 우리 나라는 반드시 통일 될 것이며 우리 집안이 다시 한집 안에서 살게 될 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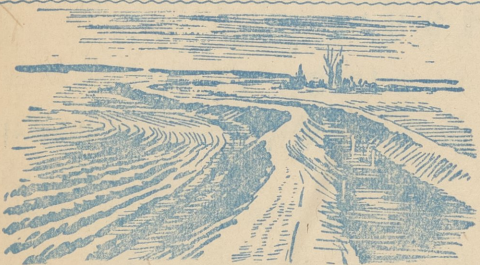
그리운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웃음꽃을 피우게 될 그날을 위하여 할머니 더욱 힘써 나아갑시다.

조국이 통일되여 할머니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디 안녕히 계십시요.

1956년 1월 1일

민주 수도 평양에서

영 세 올림

이 곳은 평남 승호 관개 공사장입니다. 매일 수천명의 승호군내 인민들과 민청원들이 새벽부터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150리나 되는 이 수로로 물 줄기가 흘러 내리며 5천 정보의 땅이 논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9천톤의 쌀을 더 거두게 된 답니다.

제방 공사장을 찾아

요지음 우리 고향—룡교리를 찾아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느새 이런 넓고 긴 제방이 생겼는가고 놀랄거예요.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우리 고향에 이런 제방이라고는 없었으니까요.

지난해 10월 3일부터 우리 재령군내 민청원 형님 누나들은 당과 수령의 호소를 받들고 불과 두달도 못되는 동안에 높이 5m에 길이 4Km가 넘는 이 훌륭한 제방을 쌓았답니다.

지난날 우리 고향—룡교리 일대의 이 넓고 기름진 벌은 해마다 수해로 수수나 피 같은 곡식 밖에는 심지 못했지요.

한 톨의 낟알이라도 더 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고향 인민들과 민청원 형님 누나들은 해마다 이것을 그대로 보고만 지날 수 없었지요.

이리하여 제방 공사는 정말 눈부시게 진행되였답니다.

이 공사가 진행될 때 많은 동무들이 이 제방 공사에 나가 수고하시는 형님 누나들을 위안해 드리자고 대 위원회에 제의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교 대 소년 단원들은 공부를 끝낸 방과 후와 일요일을 리용하여 제방 공사장을 찾아가 노래와 춤, 연극 등으로 위안해 드리였습니다.

때로는 거기서 지난날 조국 해방 전쟁에서 위훈을 세우고 지금 농촌에 돌아와 농업 협동 조합에서 일하는 제대 군인 아저씨들과 초중을 졸업하고 농업 협동 조합에서 보람차게 일하고 있는 형님 누나들과도 만나 이야기를 들었지요.

이 제방이 쌓아짐으로 올 해에는 우리 고향 룡교리 벌에 있는 상감 농업 협동 조합에서만도 50여톤의 벼를 더 거두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이렇게 개간되여 가는 고향 마을을 자랑합니다.

황남 재령군 벽산 인민 학교 대 위원장 한 순 옥

훌륭한 소년단원의 이야기

학교'길에서 있은 일

학북 길주군 목성 인민 학교 대
제 1분단 지도원 박 분 옥

눈 내린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밤새껏 내린 눈은 마을과 길을 알아 볼 수 없으리만치 온통 하얗게 깔았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공부를 하고 있던 분섭이는 문뜩 어린 동생들이 눈'길을 걸어 학교갈 일이 걱정되였습니다.

마을에서 학교까지는 약 1Km 남짓하나 학교에 가려면 두갈래로 흐르는 넓은 남대천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갈래의 남대천 우에는 지금 나무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겨울이 되여 그 우에 눈이 깔리기만 하면 어린 동생들과 늙은이들은 여간 조심해 건느지 않으면 안되였지요.

분섭이는 어린 동생들이 아침에 이 다리를 건늘 일이 걱정된 것이지요.

《나무 다리가 몹시 미끄러울텐데 애들이 다리를 건느다 미끄러 떨어지면 어떻거나. 얼음이 채 얼지 않아 물에 빠질텐데—》.

이렇게 생각한 그는 아침 공부를 끝마치고 여느 때보다 일찍 학교에 갈 차비를 갖추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분섭이는 책보와 함께 비'자루를 들고 떠났습니다.

다리 있는 곳에 이르자 그는 눈 우에 책보를 놓고 다리

우에 깔린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찬 바람에 손 발이 몹시 시려 들었으나 분섭이는 추위를 이겨 가며 한참 동안 눈을 쓸어 갔습니다.

그때 분섭이네 반 동무 형모와 철운이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학교로 오고 있었습니다.

다리 가까이에 온 영자는 분섭이를 보자 《야 분섭 언니가 다리 우의 눈을 쓸었구나》하며 기뻐하는 것이였지요.

영자는 분섭이를 친 언니처럼 따르는 2학년 학생입니다. 그가 분섭이를 그렇게 따르게 된 것은 분섭이가 지난 여름에 물에 빠진 자기 목숨을 건져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찌는듯이 무덥던 어느 여름날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장이 떠돌더니 소나기가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가 멎을 때까지 기다려 집으로 돌아 오던 영자와 그의 반 동무들이 강'가에 왔을 때는 강물이 뿔어 돌다리 우를 흙탕물이 넘고 있었습니다.

《어떻거나—》아이들은 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자만은 공연히 우쭐대며 혼자 물을 건느려 했지요.

애들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혼자 물을 건느던 영자는 그만 세찬 물'살에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어쩔 줄 몰라 허덥비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공부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분섭이가 이것을 보자 생각할 새도 없이 성큼 흙탕물에 뛰여 들어갔습니다.

물은 그리 깊지 않았으나 세찬 물'살은 분섭이마저 휩쓸어 갈 것만 같았습니다. 분섭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물'살에

밀려 내려 가는 영자를 재빨리 잡아 채고 그를 건져냈습니다.

이리하여 분섭이는 어린 동생의 귀중한 목숨을 구해냈던 것이였지요.

분섭이의 이 훌륭한 모범을 찬양하여 그에게는 군 인민 위원장 표창까지 내려 오게 되였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린 동생들과 그리고 이 나무 다리를 건느는 모든 동무들은

《분섭이는 참 훌륭한 소년 단원이야》 하고 저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동무들과 어린 동생들의 친근한 벗으로 되여 있는 분섭이는 공부에서도 항상 최우등의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를 보람있게

평북 구장 제 2중학교 인민반

류 택 희

영광스러운 새해 첫아침 나는 책상에 마주 앉아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를 다시 한번 외여 보았습니다.

이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를 외여 볼 때마다 나의 가슴에는 새로운 결의가 북바쳐 오릅니다.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이 분초를 다투어 일해나갈 희망찬 새해!

나는 지난 해에 최우등을 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일과표를 지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새해에도 최우등의 영예를 계속 지니여 나가겠습니다.

새해 새학년도가 돌아오면 나는 5학년생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에 취미를 가진 나는 앞으로 고향의 농업 협동 조합에 나가 훌륭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새해부터는 재배 식물에 대한 관찰 실험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해에는 《복습이나 하면 되지…》하고 일과표에 있는 독서와 체육을 종종 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소년단원의 친근한 벗인 책을 더 많이 읽을 결의를 다졌습니다. 거저 훌훌 읽어 버리는 버릇을 없애고 책을 읽고는 꼭꼭 읽은 책에서 느낀 것, 배운 것을 적어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분단 생활에 더 열성스럽게 참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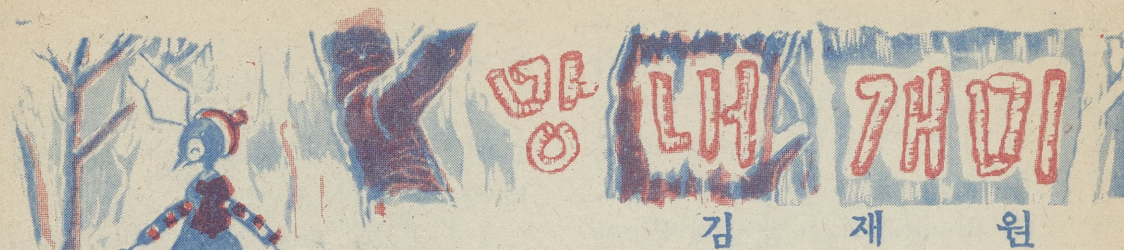
나는 우리 분단에서 만들기로 계획하고 있는 실험 기구들과 야외 직관 교편물을 더 많이 맡아 만들겠습니다.

이 실험 기구들과 야외 직관 교편물들은 우리들의 학습을 훌륭히 도와 주게 될것입니다.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다진 맹세를 어기지 않고 지켜야지요.

그러므로 나는 새해의 맹세를 꼭 지켜 나가겠습니다.

망내 개미

김 재 원

찬 바람이 윙윙 불어대고 눈보라까지 치는 추운 겨울날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땅 속 깊이 꾸린 개미네 집은 언제나 따사롭습니다.

오늘도 아침을 끝내고 개미 형제들은 재미 있는 유희를 하며 놀아댑니다. 망내 개미는 여름에 바깥 세상에서 본 여러가지 짐승들의 흉내를 내 보이는 것입니다. 개미 형제들은 손벽을 치며 토끼 흉내를 내노라고 깡충깡충 뛰는 망내 개미를 칭찬하고는 맛 좋은 꿀 과자와 빵을 상으로 주군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근심 걱정을 모르고 겨울을 따뜻이 지내는 가운데 망내 개미에게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우린 늘 땅 속에서만 살아, 바깥 세상은 지금 얼마나 좋을가?》.

망내 개미는 밖에서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얼음이 어는지 알지 못하지요. 여름에는 꼬마라고 일도 별로 하지 않았으니 집안 일도 하기가 싫었지요.

《엄마,우린 언제면 밖으로 나가요? 갑갑해 못 살겠는걸요 뭐…》.이 말을 들은 엄마는 펄쩍 뛰였지요.

《철 없는 소리 말아,바깥은 지금 바람이 불고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고… 봄이 와서 눈이 녹아야 나가 일할 수 있단다. 그러니 망내이는 맛 있는 걸 실컷 먹으면서 일 하는 법이나 배워두어라》. 이렇게 엄마에게서 말을 듣고도 망내 개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까지껏 나야 망내인데 형들이 내게 일이야 시킬라구》.망내 개미는 점점 엉석을 부리게 되였지요.

하루는 형 개미께 물었지요.

《하얀 눈이란게 뭐야, 먹지 못해?》.

형 개미는 너무나 어이 없어

《그렇게 먹을데만 헤덤벼서는 못써, 그걸 먹으면 배탈 나》 고 타 일렀지만 망내 개미는 점점 땅 속 생활에 싫증만 났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는 하루 몇 시간씩 꼭꼭 형들께서 일하는 공부를 해야 되였는데 망내 개미에겐 그게 여간 싫은게 아니였답니다.

《바깥 세상에나 놀러 나갈테야, 먹을것 많은데 뭘 일해》.

이렇게 생각한 망내 개미는

하루 아침 엄마와 형들 몰래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망내 개미는 형들이 알고 붙잡지나 않을가 겁이 나서 숨도 크게 못쉬고 문께로 발랑발랑 기여 나왔지요.

너무 기뻐서 가슴이 도근거렸습니다.

문 밖으로 머리를 내 밀려는데 잘 나가지질 않았습니다. 머리로 씽씽 받으니까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건 개미 구멍에 쌓인 눈이였지요.

망내 개미는 눈이 시울어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습니다. 몇발자국 걷노라니 발이 쑥쑥 빠지지만 바삭바삭 소리 나는 것이 망내 개미에게는 여간 재미나는게 아니였답니다.

《오라 눈이란게 이거로구나,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는데 조끔만 먹어 볼가?》.

눈을 살짝 한 입 물었던 망내 개미는 금시 눈이 똥그래지며 《에퉤!》하고 도로 배알았습니다. 이'발이 얼얼하고 입안이 들어날듯 시립니다. 그저 혀를 쯧 차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수수 바람이 불어 왔습니다.

망내 개미 앞으로 큼직하고 넙직한 것이 부석부석 소리를 내며 구우러 옵니다.

《이건 또 뭐야!》. 망내 개미는 가까이 다가 가서 냄새를 살짝 맡아 보았지요. 참 구수한 냄새가 나지요.

그것은 겨울 바람에 떨어져 딩구는 말라버린 도토리 나무 잎이였습니다. 이건 꼭 먹는게 틀림 없다고 생각한 망내 개미는 손벽을 찰삭 치며 좋아했지요.

《이놈을 집에 끌어 들이자, 엄마랑 형들이 야—하고 놀랠거야》.

이렇게 생각한 망내 개미는 도토리 잎 한끝을 물고 바득바득 끌기 시작했지요. 망내 개미가 할딱거리며 간신히 집 앞에까지 나무 잎을 끌고 왔을 때입니다. 휙— 세찬 바람이 불더니 도토리 잎은 망내 개미를 단채 훌 날았습니다. 얼마쯤 날다가 부석하고 떨어졌습니다.

《깔깔깔…》 망내 개미는 혼자 한바탕 웃었습니다.

《참 멋진걸, 나비처럼 공중을 날아 봤네… 이렇게 재미 있는

데 엄마랑 형들은 왜 처박혀 있담…》.

망내 개미는 한번 더 날아보고 싶어 도토리 잎에 올라 앉아서 바람이 불기만 기다립니다. 약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왔습니다. 이번엔 날진 않고 썰매처럼 눈 우를 스르르 지쳐 갑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것도 해가 저무는 것도 잊고 망내 개미는 나무 잎을 타고 놀아댑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지쳐가던 도토리 잎은 그만 큰 소나무 밑둥에 부딪쳤습니다.

망내 개미는 나무 잎에서 딩굴어 떨어져 소나무에 머리를 깠습니다.

《아야야…》하고 머리를 슬슬 쓸며 망내 개미가 일어났을 때는 벌써 도토리 잎은 바람과 함께 멀리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망내 개미는 그만 실쭉한채 그제야 집 생각이 나서 사방을 살펴 봤지요.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잊었으니까요.

낮에 가족들 몰래 빠져 나오느라 점심도 먹지 못한 탓으로 배에서는 꼬록꼬록 소리가 납니다.

망내 개미는 어방하고 허둥지둥 걷기 시작했지요. 눈 속에 빠지는 발을 빼기도 인젠 힘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망내 개미는 울음 섞인 소리로 산 속을 헤맵니다. 얼마나 갔던지 몸이 지쳐 눈 우에 발을 펴고 눕고 말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 내립니다.

하늘에서는 뭇별들이 반짝이고 있고 아기별은 엄마별 곁에서 무엇인지 조잘거리고 있는 것 같이 망내 개미에게는 보였습니다. 엄마와 형들이 못 견디게 그리워집니다.

《집으로 갈 수 없을가?》.

이렇게 생각한 망내 개미는 그만 소리 내여 《와!》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엉! 부엉! 부엉!》

이때 나무에서 부엉새가 울었습니다.

망내 개미는 《부엉이 할아버지!》하고 크게 불렀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부엉이는 마침내 망내 개미를 봤습니다.

《아니 넌 어떻게 된 개미냐? 이 추운 겨울에?》.

놀란듯이 부엉이 할아버지는 물었습니다. 마음 좋은 부엉이 할아버지는 망내 개미께서 사정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는 이 산에서 오랜 세월을 늙어 온 탓에 모르는 곳이라군 없었지요. 망내 개미네 집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침을 뚝 따고 망내 개미에게 말하지요.

《응 너의 집을 알기야 하지.그러나 데려다 줄 순 없어! 너같이 부모 말을 안듣고 못된 장난을 하며 일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난 싫어하니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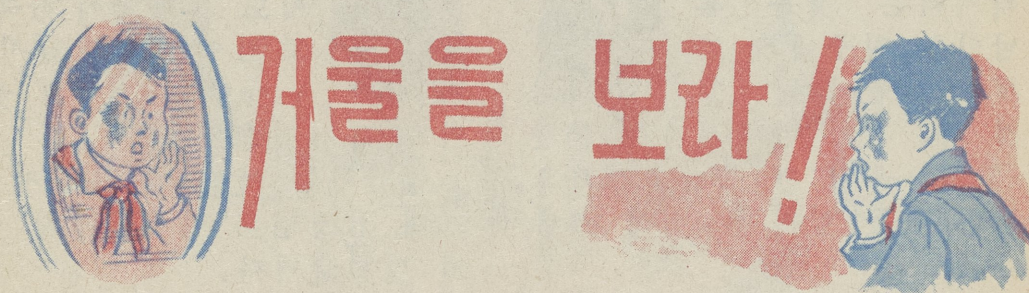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망내 개미는 안타까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인제 다시는 엉뚱한 생각을 안하겠노라고 했지요.

《네가 정 그렇게 착한 아이가 되겠다면 내 너의 집까지 데려다 주지》.

부엉이 할아버진 그제서야 둥그런 눈을 숨뻑이며 말했습니다.

망내 개미가 없어져 큰 소동이 벌어진 개미네 집에 부엉이 할아버지가 망내 개미를 업어다 주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에게 둘러싸여 망내 개미는 그만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난 인젠 엄마랑 형들 말 잘 듣고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가 되겠어요》하고 망내 개미는 눈물이 그룽그룽 몇번이나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라!

추운 겨울이 돌아 오자 춘식이는 가끔 세수를 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지요.

어머니가 타 이르면

《학교에 가다가 내'가에서 할래요》 하고 대답하군 하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춘식이가 학교에 나오자 운동장에서는 웃음'보들이 터졌습니다.

《춘식의 얼굴 좀 봐, 곰 얼굴…》.

《아니야 아니야, 까마귀 낯이지》.

장난'군인 춘식이는 그래도 여느때처럼 떳떳했습니다.

《누가 세수를 안한 줄 알아! 놀리다간 혼날 줄 알어!》.

춘식이는 어깨를 으쓱하고 아이들을 헤치며 걸어갔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자 거울을 봐라, 거울이야 혼내울 수 없을테지》.

춘식의 얼굴은 거울에 비쳐졌습니다.

《에키!》

춘식의 얼굴은 점점 원숭이 볼기처럼 빨개졌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아기를 놀리노라고 얼굴에 먹칠한 것이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리 배 형)

한개의 못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였습니다.

길'가에서 무엇인가 반짝거리는 것을 본 영남이는 철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저것 봐, 저기 반짝거리는 물건이 있어, 우리 가 볼가?》 하고 그는 철수를 앞서며 뛰여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것은 생각지도 않던 한개의 못이였지요. 영남이는《에이 참 이건 뭐야》하고 쥐였던 못을 집어 던지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을 본 철수는《아니 너 왜 그걸 던지니, 못 하나라도 우리는 아낄 줄 알아야 한다고 하잖던—》하며 영남이가 던진 못을 다시 주었습니다.

《못 하나쯤 가지고 뭘 그래》. 영남이는 코웃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주은 못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어느날 학교에서의 공부 시간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찌글거리던 영남이의 걸상이 그만 《뿌지직》 소리를 내며 한쪽으로 납작 내려 앉았습니다. 영남이도 그바람에 한쪽 모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이들은 킥킥 웃으며 수근거렸습니다.

영남이는 어쩔 줄 몰랐지요. 그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때에 못 하나만 박았어도 영남이는 걸상을 마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영남이의 얼굴은 화끈 달아 올랐습니다.

《정말 한개의 못도 쓸모 있고 귀중하구나, 그놈 못을 내던지지 말고 제때에 걸상에 박았더라면…》 하고 그는 속으로 뉘우쳤습니다.

공부가 끝나자 철수가 영남이에게로 찾아 왔습니다.

《엇다, 이 못으로 고쳐라》. 철수는 자기가 모아 두었던 여남으개의 못을 영남이에게 주었습니다. 영남이는 철수와 함께 찌글어진 걸상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량강도 보천 인민 학교 대 리 청 섭

버릇 나쁜 아이

예 · 차루신

한 곳에 니끼따라는 애가 있었는데 좋지 못한 버릇이 있는 애였습니다. 그애는 늘 무엇이건 혀로 핥기를 좋아했답니다.

점심을 먹을 때는 칼이나 혹크를 즐즐 핥지요. 그러다가 칼에 상하기나 하면 어쩌자구요!

그림을 그릴 때에는 또 붓을 입으로 짭짭 빤답니다. 거기엔 독이 있는데 그러다가 독이나 오르면 또 어쩌자구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혀로 접씨를 왼통 핥지요. 글쎄 반반히 핥는답니다.

니끼따는 거리로 다닐 때에도 그저 무엇이던 핥으며 또 빤답니다.

고드름을 보면 곧 입에 집어 넣지요! 눈이 올 때에는 혀를 내 밀고 거리를 다닌답니다.

그러니 니끼따는 나쁜 버릇이 있는 애가 아니고 무엇이예요!

몹시 추운 어느 날이였답니다. 거리는 왼통 찬 서리로 덮여 있었지요. 나무들도, 숲들도, 담장들도, 그리고 집들도, 모두… 은가루를 뿌린듯 했습니다.

니끼따는 놀러 나갔다가 얼마쯤 되여 다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눈에 띄운 것은 성애가 하얗게 붙은 문고리였습니다. 마치 사탕과도 같이 희고 흰 것이였지요.

니끼따는 혀로 이 문고리를 핥았습니다. 그러자 혀는 문고리에 딱 붙어버리고 말았지요.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는 혀를 떼려고 했으나 혀는 아플뿐이였지요. 큰 소리를 내여 앙앙 울고 싶었으나 혀를 떼야 울기도 하지요!

니끼따는 등을 꾸부리고 문 앞에 서서 코를 박고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이때 그의 동무들이 뛰여 왔습니다.

《니끼따야, 넌 뭘 하고 있니? 왜 거기 서 있니? 왜 씩씩 거려?》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니끼따는 대답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저 허리를 꾸부리고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동무들은 깜짝 놀라 예고르 이와노위츠 할아버지 한테로 뛰여 갔습니다.

《예고르 이와노위츠 할아버지, 니끼따의 혀가 붙었어요》하고 소리쳤습니다.

예고르 이와노위츠 할아버지는 곧 알아차리고 더운 물이 든 주전자를 가지고 니끼따한테로 뛰여 왔습니다. 곧 동으로 만든 문고리에 물을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물을 끼얹었더니 문고리의 성애는 녹아 흐르고 혀가 떨어졌지요.

이때부터 니끼따는 무엇이든 핥기를 좋아하던 버릇을 뗐답니다. (김 원 필 역)

손

점심 시간이 되였습니다.

3학년 3반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에 떨쳐 나와 선생님의 손을 잡고 노래하며 빙빙 돌아 갑니다.

그런데 정찬이만은 운동장 한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지 않겠어요.

선생님은 인차 정찬이를 보시더니

《어서 이리로 와요, 손 잡고 함께 놀아요》하고 불렀습니다.

비슬비슬 걸어온 정찬이는 선생님을 쳐다 볼 뿐 손을 잡지 못했지요.

《자 손을 잡자》하고 선생님은 정찬이의 손을 잡아 끌어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정찬이의 손은 붉은 손이 아니라 깜안 손이였답니다.

그가 선생님 가까이로 오지 못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였지요.

— ★ —

그림

태관이는 그림을 썩잘 그리죠.
그림만 그리면 칭찬을 받죠.

그러나 그러나 여기를 보아요.
책, 담벽, 책상을…
비행기, 땅크, 자동차가 달리지요.

이것을 그리는건 아주 좋은일
그러나 그러나 여기에는 안되지 책, 담벽, 책상에는…

평남 룡강군 지사 인민 학교

김 옥 형

—사랑하는 우리 고향—

고향의 옛 자취를 찾아

평북 녕변군 서산 인민 학교 대
위원장 김 명 호

평북 녕변 찾어 가자.
약산 동대 찾어 가자.

....

바로 이 노래는 옛날부터 전해 오는 아름다운 우리 고향에 대한 노래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향에서 배우며 자라는 것을 우리들은 한없이 자랑한다.

우리들에게는 자랑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 고향에 철옹성이라고 부르는 옛성이 있는 것이다.

철옹성이란 뜻은 철옹 (쇠독) 같이 튼튼한 성이라는 말이다.

그럼 철옹성은 언제 쌓은 것이며 왜 철옹성이라고 부르는가?

우리들은 이것을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지난 봄과 가을에도 약산 동대에 오르면서 철옹성 일부를 답사하였으며 철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철옹성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고 있었으며 수집한 자료도 적어 두지 않아서 그 동안 잊어 버린 것도 있었다.

방학을 앞둔 대 열성자 모임에서는 향토 답사대를 조직하여 철옹성 답사를 떠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답사에서 수집한 전설, 력사 이야기들을《우리 고향의 력사》라는 고적 답사록을 만들고 적어 두기로 의논되였다.

열성자 모임에서 소년단 지도원 선생이 우리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었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 긴 철옹성의 답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녕변 고급 중학교 민청 형님 누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고중에서 이미

답사한 철옹성에 대한 략도를 빌려 보며 성의 생김, 성의 유래들도 들었다.

이리하여 철옹성 답사 준비는 진행되였다.

× ×

우리 향토 답사대는 든든히 겨울 옷차림을 하고 철옹성 답사를 떠났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줄곧 이미 들은 철옹성에 대한 전설로 꽃피였다.

전설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두 오누이가 밤낮 사흘 동안에 이 철옹성을 쌓은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전설이 생겼겠는가, 저마다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선생님,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 것은 량반들이 아니라 인민들이라는 걸 말해주는게 아닙니까!》.

어린 력사가 리 근찬 동무가 이렇게 해석하면서 선생님에게 물었다.

《옳습니다. 이 철옹성은 인민들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 내기 위하여 쌓은 것입니다》.

어느덧 북수구문을 지나서 신성, 약산성을 차례로 답사하였다. 활을 쏘고 총을 쏘던 총구가 20m사이에 8개씩 있었으며 본성에는 6개씩 있었다. 이것은 18,550여m의 철옹성에 총구가 6480여개나 있는 것으로 되며 많은 군대가 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몇 동무들은 우리 고향의 력사를 배우는데 귀중한 자료로 되고 있는《철옹비》에 새

겨 있는 내용을 적었다. 비석글이 한문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 사는 로인을 모셔다가 그뜻을 들었다.

옛날 우리 고향 사람들이 여러 차례 외적의 침입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굴하지 않고 성을 지켜낸 자랑을 길이 전하고 있는 글이였다.

우리들은 옛날 군수 물자를 간직해 두던 창고, 적의 침입을 감시하던 감시초 등 옛자취들을 따라서 철옹성의 답사를 끝마치였다.

× ×

철옹성 답사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지금 철옹성 답사에서 얻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다.

답사에서 얻은 많은 자료들과 철옹성 력사에 대하여 의논한 이야기들을 대벽보 주필 주 묘자 동무는 《우리 고향의 력사》라는 책에 적어 나가고 있다.

철옹성이 언제부터 있었는가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이야기되였다.

《철옹비에는 철옹성을 1416년에 이 지방 인민들 3만6백명이 17일간에 쌓았다고 했으나 이것은 그전에 있었던 성을 튼튼하게 다시 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려시대에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철옹성에 대한 전설을 적은 다음 철옹성이 지닌 자랑을 적어 나갔다.

철옹성내 인민들과 군대들은 고려 시대의 유명한 장군인 강감찬 장군이 1019년에 거란 침략군을 무찔러낼 때에도 그의 령도를 받들어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1174년에 량반들을 반대하는 농민 폭동군이 량반 계급에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자랑스러운 성이다.

1235년과 1628년에 외적이 쳐들어 왔을 때에도 연주(녕변) 성내 인민들과 군대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성문을 열지 않고 용감히 싸운 성이다.

이와 같이 철옹성이란 이름은 옛선조들이 나라를 위하여 고향을 지켜낸 자랑이 깃들어 있는 이름인 것이다.…

철옹성 답사를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 고향의 력사를 잘 알게 되였으며 고향을 지켜낸 선조들의 애국심을 배웠다.

우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 고향의 력사》는 이렇게 날마다 더 풍부해져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졸업할 때 동생들에게 남겨 줄 훌륭한 선물로 될 것이다.

☆유희☆

원 짓기 놀음

이 놀음은 분단 전체가 할 수 있습니다. 놀음에 참가할 동무들은 처음에 한 줄로 서서 《하나, 둘》 번호를 부릅니다.

번호에 의하여 2번 동무들은 모두 그자리에서 뒤로 돌아 섭니다. 이렇게 1번 동무들과 2번 동무들은 두패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전체 동무들은 제 자리에서 옆의 동무와 팔을 엇겁니다.

그러면 놀음은 시작됩니다.

첫 신호가 내리자 두패는 서로 자기들이 향한 쪽으로 상대편을 끌고 나가면서 먼저 원을 짓는 편이 승리자가 됩니다.(그림을 보라)

원을 지을 때 대렬이 끊어지면 안됩니다. 원은 자기 편의 량쪽 끝의 동무들이 손을 맞잡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원을 완전히 짓자면 쉽게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실험실

유리 컾이 저절로 움직인다

긴 유리판이 약간 경사지게 한쪽을 성냥갑 같은 것으로 고여 놓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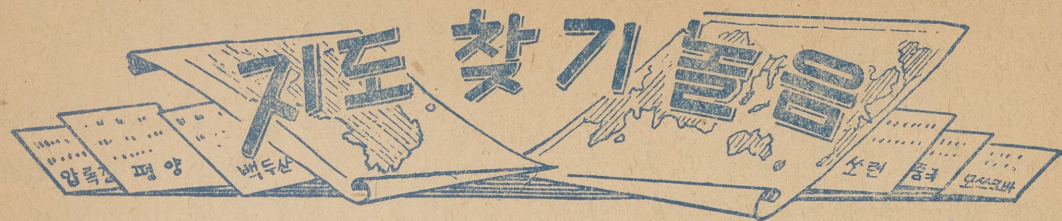
그 다음 그 우에다 젖은 걸레로 가장자리를 적신 유리 컾을 엎어 놓으시요.

유리컾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초'불이나 성냥불로 유리컾을 덥혀 보시요. 1분쯤 지나면 유리 컾은 움직여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가요.

× ×

유리컾 안에 있는 공기가 열을 받아 불어나서 유리컾을 약간 우로 올려 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물'기 때문에 유리판에 붙어 있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지도 찾기 놀음

소년 신문을 보고 함북 라진 군 라석 인민 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이 즐겨 놀고 있는 지리 카드 놀음을 우리 분단에서도 해 보았습니다.

지리 학습에 도움을 주는 재미 있는 놀음이였습니다.

우리들은 그 놀음을 좀 고치여 놀고 있습니다.

이 지도 찾기 놀음을 하기 위하여서는 조선 지도, 세계 지도 등 여러가지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맞게 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선 지도에는 산맥, 산, 강, 도시, 평야, 바다 등을 그려 넣으며 세계 지도에는 나라 이름, 수도, 바다, 큰 강과 산맥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카드에는 례를 들어 평양이면 지리 교과서에서 평양에 대하여 배운 것을 간단히 쓴 다음 마지막에 《평양》이라고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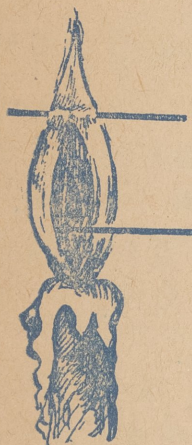
이 놀음을 놀 때에는 놀음을 놀 동무들이 지도 주위에 모여 앉고 한 동무가 카드를 읽습니다.

지도를 들여다 보고 있는 동무들은 카드 읽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무엇을 찾으라는가를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평양》(실례) 하는 말이 떨어지면 그것을 지도 우에서 찾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찾는 동무가 그 카드를 차지하며 카드를 많이 차지하는 동무가 승리자로 됩니다. 한번 끝나면 다른 동무가 카드를 읽고 다시 놀 수 있습니다.

녕변 인민 학교 대 제4 분단
지도원 리 향 옥

우리들의 실험실

초'불을 가지고

초'불을 잘 보시요. 초'불의 밑은 파란 빛이고 그 우는 또 빨간 빛이고 맨 꼭대기는 검은 빛이지요.

쇠줄을 같은 시간에 초'불의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에 넣어 보시요.

초'불의 빨간 부분에 넣은 쇠줄이 먼저 새빨갛게 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왜 그러냐 하면 초'불의 파란 부분은 초가 열을 받아 까스로 증발하여 불이 붙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빨간 부분은 초에서 발생한 까스가 잘 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험하려고 물을 끓일 때 너무 불'길 가까이에 물그릇을 갖다 대면 오히려 물이 늦게 끓여지지요.

우리들의 실험실

병 마개가 뽑아지지 않을 때

유리 병의 마개가 뽑아지지 않을 때나 만년필 마개가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수건에 뜨거운 물을 적시여 잠간 그곳에 감아 두면 쉽게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가요. 동무들도 간단히 실험해 보십시요.

× ×

이것은 유리나 만년필 마개가 가열되면 팽창되여 마개의 구멍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오락실) 그림자 만들기

다음의 그림은 손 그림자로 된 동물들의 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동물들이며 이 동물들은 지금 어떤 자세를 하고 있습니까.

동무들도 손 그림자로 여러가지를 만들어 보십시요. 만들어낸 동무들은 편집부에 만드는 법을 보내 주십시요.

새로 나온 책들

《우리 마을》

임대림 작
리순영 역

이 책은 날로 발전하는 중국의 농업 합작사(협동 조합) 내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는 중국 어린이들의 생활을 그린 소설책입니다.

《버들 피리》

(옛 이야기 책)

이 책에는 《나무'군과 그의 아들》, 《금빛 닭》, 《화경노》, 《마음 착한 어부》, 《버들 피리》 등 조선의 옛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알렉쎄이와 영호》

송창일 작

이 소설에는 집 없는 고아 영호가 해방의 은인인 쏘련 군대 중위 알렉쎄이 아저씨의 따뜻한 사랑 속에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는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렉쎄이 중위는 청진에 상륙했을 때 우연히 만난 집 없는 아이 영호를 학교로 보내 주었고 항상 자기의 친 아들처럼 사랑해 줍니다.

이 소설은 우리들에게 해방의 은인인 쏘련 인민과 쏘련 군대의 은공에 대한 정을 더욱 두텁게 해 줍니다.

제11호 현상문제 해답 및 당선자 발표

답

새 민주 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 정 자

12월 30일 현재 접수 전수 1548건 중에서 30건을 당선시켰습니다.

현상 문제 당선자 발표

함 북 회령군 제2중학교(인민반) 고영수	함남도 랑림군 련화 인민 학교 김승호
함 북 청 진 제10 인민 학교 조영숙	자강도 송원군 관평리 김정호
함 북 종성군 락생 인민 학교 강금자	자강도 강계시 제 3인민 학교 리춘자
함 남 단천군 원산 인민 학교 김기혁	량강도 풍서군 제3중학교(인민반) 전경자
함 남 인흥군 금풍 인민 학교 전정무	량강도 백암군 신전 인민 학교 리옥자
함 남 허천군 제2중학교(인민반) 최영환	황 북 연탄군 성매 인민 학교 윤귀창
평 북 구장군 상구 인민 학교 류호남	황 북 연산군 공포 인민 학교 봉원옥
평 북 대관군 제3중학교(인민반) 김원영	황 북 장풍군 제3중학교(인민반) 김광서
평 북 관정군 제6중학교(인민반) 김세환	황 남 장연군 산전 인민 학교 김명선
평 남 강남군 동정 인민 학교 최정길	황 남 청단군 운곡 인민 학교 고기석
평 남 순천군 사인 인민 학교 조인응	황 남 해주시 제 1인민 학교 리명도
평 남 남포 제 1중학교(인민반) 리정웅	개성지구 개풍군 해선 인민 학교 정규상
강원도 평강군 금곡 인민 학교 김추실	평 양 제 38인민 학교 김명자
강원도 해양군 추전 인민 학교 김옥희	평 양 사범 부속 인민 학교 채두양
강원도 판교군 리상 인민 학교 리계순	중 국 료녕성 북진 제1 초등 학원 박종운

앞표지 승리의 새해 맞는 기쁨……김창규 촬영
뒤표지 썰매타기는 즐겁다!……최도순 촬영
내용 삽화 컷……………………림영환 리춘수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창호 원 홍구 리 순길
강 효순 리 배형 림 홍은

1956년 1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소년잡지
1956년 1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6년 제 1호 (76호)
발행소 민주청년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 0004 값 25 원 52,000부 발행